



뉴스레터

저자 : 네트워크 사무국 - 제주, 메노르카(스페인)

2014년 3월 31일자

기후변화 대응 공동연구사업 추진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제주사무국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단계에 걸쳐 생물권보전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 관한 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동중국해, 지중해, 인도양, 카리브해 4곳을 대표구역으로 지정하여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곳의 연구지역을 대표하여 제주 BR(동중국해), 마카비/벨롬브레 BR(인도양), 마요르카 BR(대서양), 세인트마리 BR(카리브해)지역의 대표 연구진을 선별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책임연구원은 제주 BR의 정대연 교수이다.

공동연구사업은 1단계로 생물권보전지역 기후변화 영향 사례 문헌조사를 통한 취약점 분석, 2단계로 생물권보전지역 기후변화 공통 취약점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1단계와

2단계 사업기간은 각각 1년씩 총 2년간으로 계획하고 향후 2차년도 연구추진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최종 연구사업계획서를 책임연구원인 정대연 교수가 2월 중에 작성하였고 연구진들의 최종 검토를 거쳤다.

3월부터 착수한 1단계 연구는 연구진들이 각자 맡은 생물권보전지역에서의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경제적, 생태학적, 지리학적 요소를 기존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기로 하고 4월 말까지 분석자료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6월 중에 필리핀 팔라완에서 있을 제4차 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하여 연구사업에 대한 중간점검 및 2단계 사업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로 하였다.

3차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회의 사례집 발간

지난 2013년 6월 3일부터 6일에 에스토니아에서 개최되었던 제3차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회의와 관련하여 사례집이 발간되었다. 이 회의에는 관계자 40명 이상이 참석하고 22건의 관련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 회의를 통해 각국 해당 생물권보전지역을 소개하고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사례집은 영어, 스페인어로 각각 발간되었으며, 한국어는 전자책으로 발간되었다.

영어와 스페인어로 인쇄된 사례집은 유네스코 본부, 스페인 사무국, 개최지 에스토니아에 보냈으며, 차기 개최지인 필리핀 팔라완에도 보냈다. 한국어를 포함한 전자책은 제주사무국 홈페이지 및 유네스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사례집 표지 사진)

제4차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회의개최 예정

제4차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이하 BR) 네트워크 회의가 다가오는 2014년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필리핀 팔라완 BR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회의는 유네스코/MAB, 제주-스페인 BR 및 네트워크 사무국 주최하에 그리고 팔라완 지속가능개발센터의 주관하에 진행된다.

총 28개국 35개 BR을 대표하여 참석하는 참석자들은 15분간 각자 책임을 맡고 있는 BR지역에 대한 소개 및 현재 이루어지는 활동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발표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리핀 팔라완 BR 현장체험을 통해 팔라완 BR지역을 홍보하고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지난 3차 회의에서는 16개국 22개 BR에서 참석한 것과 비교하면 네트워크 구축이 더 활성화되고 적극 참여하는 회원지역이 많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각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하고 보다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도록 의제 중 하나로 채택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정보를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다.

제주사무국 홈페이지 주소 : <http://wnicbr.jeju.go.kr/>

제4차 태평양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회의개최 예정

제4차 태평양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PacMAB) 회의가 다가오는 2014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피지 나디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PacMAB은 2006년 12월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호주, 뉴질랜드, 쿡섬, 마이크로네시아 등 12개국의 회원국이 가입한 태평양 중심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이다. 이번 4차 회의는 유네스코 Apia 사무국 주관하에 약 17명의 참석자들이 참석하여 각자 책임을 맡고 있는 BR지역에 대한 소개 및 현재 이루어지는 활동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발표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논의하여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 태평양 BR의 구체적 행동계획
- 신규회원국 가입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 방안
-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시행방안 및 로드맵개발
- MAB위원회와 BR간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향후 활동 방안

제주 생물권보전지역 분과위원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위원회의 생물권보전지역 분과위원회가 2014년 2월 12일에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분과위원회에는 조도순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찬수 부위원장, 김은영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팀장,



MAB 한국위원회 황명규 사무국장, 그리고 등록유산 관계자 5명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의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브랜드 활용 지침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아울러, 향후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해양생태연구와 연계하여 해양환경 모니터링 사업 및 연구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하여 제주도 역량 강화에 이바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해양환경 수중 모니터링 연구 규모 확대 및 장기적·지속적 연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따른 예산증진을 유네스코에 요청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생태마을 관광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주도형으로 추진하되, 이를 위해 컨설팅 운영 및 성공사례 제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를 생태마을에 적용하여 인지도 제고되어야 함에 뜻을 같이했다.

생태체험교육 강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유네스코 학교와 관련해서는 제주 생물권보전지역의 의미를 부각시켜 생태체험을 포함한 복합적인 활동 유도가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다음 회의 때 논의하기로 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현재 제주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생물권보전지역 활동 및 네트워크 활동을 제주도에서 국내로 범위를 확장하여 예산지원도 국비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데 꼭 필요한 만큼 그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를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국비지원을 위해서는 환경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므로, 환경부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생태관광에 초점을 맞춰 맞춤형 생태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집중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곳자왈을 핵심지역으로 확장하고 제주도 섬 전체를 전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을 검토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심의 사항이었던 브랜드 상표사용 승인과 관련하여 승인 대상 중에서 수산물 승인 기준이 모호하여 이 기준을 재정립하는 것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제주도 인지도 가치를 높이는 생물권보전지역 활동과 관련하여 환경 모니터링 및 연구를 비롯하여 생태관광 및 교육 등 복합적인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상호간의 네트워크 강화가 매우 중요함이 인지되었고, 보다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불가피하여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데에 모두가 동의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

※ E-mail : sjmj079@hotmail.com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제주사무국)